

제 1회 청주2018창작희곡공모전 심의결과

(사)한국연극협회 충청북도지회 청주시지부의 ‘제 1회 청주2018창작희곡공모전’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사)충북연극협회 청주시지부 회장 정창석



1. 심의개요

| 시상 | 심의일시 | 심의방법 |
|----------------------|--------------|-------------------------|
| 제1회 청주2018창작희곡공모전 | 2018. 07. 27 | 개별 1차 - 7편 선정 |
| | 2018. 08. 03 | 개별 2차 - 5편 선정 |
| | 2018. 08. 08 | 본심 - 3편선정 최종심 - 등위결정 |

2. 심의결과

| 등위 | 대상 | 시상훈격 | 성명 | 작품명 | 시상 |
|----|------|--------------|-----|----------------------|-----------------|
| 1위 | 대상 | 청주시장상 | 위기훈 | 직지를 찾아 떠난 청주 할아버지 |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
| 2위 | 최우수상 | 청주예총회장상 | 이강홍 | 팔로우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 3위 | 우수상 | 청주 연극협회장상 | 정경진 | 벚꽃 피는 계절에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3. 심사위원 총평

제1회 청주2018창작희곡공모 심사평

사)한국연극협회 청주시지부에서 청주시의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8 제1회 청주 창작희곡공모’를 시행한다는 소식은 희곡을 쓰는 많은 극작가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희곡공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작을 제작공연까지 하는 사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창작신작을 개발하고 공연으로 무대화하기 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희곡의 완성은 무대이므로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청주시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공모기간이 다소 짧은 탓인지 응모편수가 다소 적었으나, 청주 소재를 담고 있는 응모작들의 면모는 작가들의 많은 공력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모작들이 다룬 소재로 단연 ‘직지’가 강세를 보였으나 청주를 드러다 볼 수 있는 소재들도 몇몇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재의 국한은 목적극의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적 상상력과 시의성을 살려 ‘지금’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고민한 흔적들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기록유산을 미화하거나, 극적 효과를 위해 사실과 다른 지나친 비약이나, 기록에 대한 부정확성은 신중하게 걸러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표기된 작품이 있다. 작가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무대화 됐을 때 공연으로써의 확장성과 연극으로의 극성에 기준을 두고 선정과정을 거쳤음을 밝힌다.

예심 1차에서 7편의 작품을 선정하고, 2차에서 5편을 선정, 본심에서 3편을 선정한 뒤 최종심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가렸다. 예심, 본심, 최종심에 선정된 작품들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예심에서는 소재를 다룸에 있어 상식적인 면만 다루거나 본질을 관통하지 못한 작품과 극의 열개를 탄탄하게 엮지 못한 작품이, 본심에서는 소재와 주제의 지극히 익숙함을 넘지 못하거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지점이 다소 선명하지 않은 작품이, 최종심에서는 극을 풀어내는 방법론에서 서사만 강조된 작품이 아쉽게도 수상 후보작에 들지 못 했다.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벚꽃 피는 계절에], [팔로우], [직지를 찾아 떠난 청주 할아버지]이다. [벚꽃 피는 계절에]는 무림현을 배경으로 심오하고 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탁월한 상상력으로 현생과 사후세계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솜씨가 돋보이나 무대에 대한 극작술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팔로우]는 직지에 대한 기록, 조사 등 교육적 효과가 탁월하나 극성이 아쉬웠던 작품으로 장황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직지를 찾아 떠난 청주 할아버지]는 설정을 현대 시점으로 끌고 와 직지를 찾으려는 인물들을 통해 이념을 넘어선 소통의 화해 코드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설정이 설명으로 보충되면서 극에서 곁도는 것이 아쉬웠지만, 가족의 사랑과 직지의 접목이 탁월하고 재밌게 구성되었음이 강점으로 작용한 작품이다. 심사위원 3인은 논의 끝에 상대적으로 극적 긴장감과 정서의 호소력, 희곡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갖춘 [직지를 찾아 떠난 청주 할아버지]를 대상에, 최우수상은 [팔로우]를 우수상은 [벚꽃 피는 계절에]를 선정하기로 했다.

수상작 3편의 작가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희곡에서 아쉬운 지점들은 공연화 되는 과정에서 보완되길 바라는 마음도 남긴다.

희곡은 시대의 언어를 기록하고 겨레의 말로 소통하며, 과거를 현재화 시키고, 현재로 미래를 제시하는 문학이자 공연예술의 시작이다. 2018년 제1회로 시작한 청주 희곡공모가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춰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산실이 되길 기원한다. 내 년엔 더 많은 극작가들이 청주의 정신을 살리고 시대의 철학이 되는 작품을 가지고 청주 희곡공모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진운성, 송형종, 김수미

4. 시상식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14:00 청주예총 3층 회의실 (변동가능)

5. 문의 : 사)충북연극협회 청주시지부 사무국(☎010-3592-1368)